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KNN(058400)

방송서비스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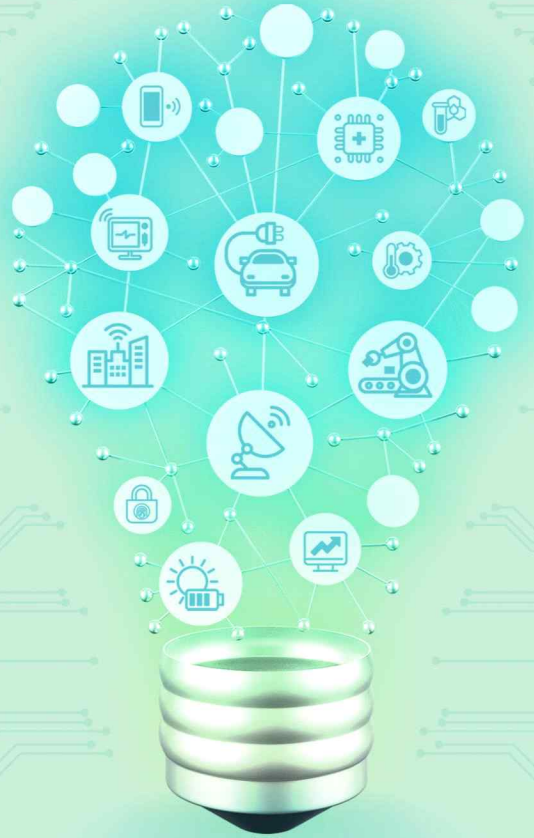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이윤선 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NN(058400)

부산·경남 지역 668만 명의 시청자를 단일방송권으로 보유한 민영방송사업자

기업정보(2022/05/16 기준)

대표자	이오상
설립일자	1994년 09월 07일
상장일자	2010년 11월 03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지상파 방송업
주요제품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시세정보(2022/05/16 기준)

현재가	1,260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1,669억원
발행주식수	132,429,720주
52주 최고가	2,310원
52주 최저가	1,175원
외국인지분율	0.00%
주요주주	
(주)넥센	39.44%
(주)성우하이텍	5.55%

■ 부산·경남 지역 민영방송사업자

KNN(이하 동사)은 1994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201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동사는 1995년 개국 이래 지금까지 지상파 TV 및 라디오 방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콘텐츠 제작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KNN 미디어플러스와 (주)KNN미디어플러스경남, 부동산 시설관리 업체인 (주)KNN 디앤씨를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2021년 동사의 매출액은 649.8억 원이며, 방송광고 사업이 49.8%로 동사의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 지상파방송 시장 약세 지속, 광고 시장은 이벤트 호재로 성장 기대

지상파방송은 지난 수십년간 여론을 주도하고 대중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정보와 오락을 제공하며 고도의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최근 IPTV, OTT 플랫폼 등 다양한 방송매체의 등장으로 시장지배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위성파 케이블방송에 별도의 채널로 진출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로의 진출을 통해 멀티미디어로서의 변신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방송사의 주요 매출원인 광고시장은 지상파TV의 중간광고 시행 등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동계 올림픽, 월드컵 등 대형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어 시장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작품상 수상을 통해 프로그램 제작 능력 인정

동사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인 '건축오디세이 신들의 집'이 2022년 4월 제34회 한국 PD 대상 지역특집 부문 작품상을 수상한데 이어, '과학으로 본 허황옥 3일'이 2022년 한국민영방송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프로그램 제작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공연, 전시 등의 문화사업, 종속회사 (주)KNN디앤씨를 통한 부동산종합시설관리 및 부동산임대사업 등을 영위 하며,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9	711.2	10.9	74.4	10.5	81.3	11.4	4.2	3.9	7.1	61	1,479	20.0	0.8
2020	573.3	-19.4	62.1	10.8	61.9	10.8	3.1	2.9	7.0	46	1,506	53.7	1.7
2021	649.8	13.3	98.8	15.2	91.9	14.1	4.5	4.2	7.7	69	1,552	20.1	0.9

기업경쟁력

부산·경남 지역 단일방송권 확보

- 부산·경남 지역 668만 명의 시청자를 단일방송권으로 확보
- SBS와 프로그램 공급 협약을 맺고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방송광고 수익 창출

자체 프로그램 제작 능력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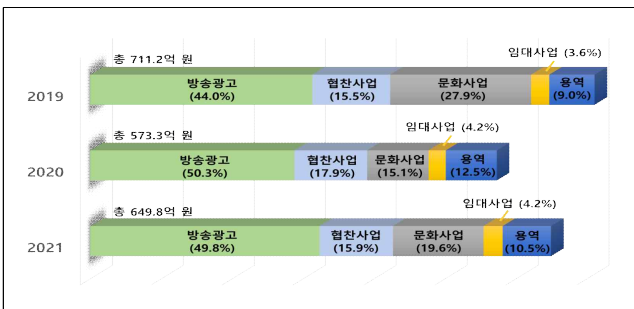
- 특집 다큐멘터리 '건축오디세이 신들의 집' 제34회 한국 PD 대상 지역특집 부문 작품상 수상
- 특집기획 '과학으로 본 허황옥 3일' 2022년 한국민영 방송대상 우수상 수상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종속회사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기술 보유

- 자체 프로그램 제작 능력 보유
- 국내 최초 프로야구 인터넷 중계사업 시작
- 홈페이지 운영 및 전산 소프트웨어 개발
-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 통합관리 솔루션 및 보안, 유지보수 등의 기술력 보유

동사의 3개년간 매출액 추이(연결기준)



시장경쟁력

지상파방송의 방송사업 매출액 추이

년도	시장규모	성장률
2015년	4조 1,007억 원	연평균 2.8% ▼
2020년	3조 5,665억 원	

- 지상파방송은 지난 수십년간 여론을 주도하며 고도의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최근 다매체·다채널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지상파방송의 시장지배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음
- 방송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들은 위성과 케이블방송에 별도의 채널로 진출하고 있으며, 멀티 미디어로서의 변신을 추진하고 있음
- 지상파 방송사의 주요 매출원은 방송광고 수익으로, 이는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한 분야임
- 올해 동계 올림픽, 월드컵 등 대형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어 광고시장의 성장이 전망됨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동사 산업 특성상 대기 및 수질오염 물질, 온실가스 등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과 자원이용, 작업환경 등과 관련한 이슈 발생 가능성은 적음.

S

(사회책임경영)

- 동사는 지역의 학술, 문화, 예술 중흥의 구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의 학술문화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KNN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동사는 남녀 고용 평등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음.

G

(기업지배구조)

- 동사는 제8기(2001년)부터 제28기(2021년)까지 21년간 매 결산 연속적으로 현금배당을 시행하고 있음.
- 동사는 KNN 취재윤리강령 및 KNN 클린센터를 통해 언론사로서의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언론에 의한 피해 예방과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NICE디앤비의 ESG 평가항목 중, 기업의 ESG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현황을 구성

I. 기업현황

부산·경남 지역 668만 명의 시청자를 단일방송권으로 보유한 민영방송사업자

동사는 1994년 설립되었으며, 201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동사는 현재 SBS와 프로그램 협약을 맺고 지상파 TV 및 라디오 방송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은 방송광고 수입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매출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1년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며 매출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

■ 회사개요 및 주요주주

동사는 부산방송주식회사(PSB)란 사명으로 1994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2006년 5월 (주)KNN(Korea New Network)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2010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동사는 1995년 개국 이래 지금까지 지상파 TV 및 라디오 방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인터넷 방송 및 방송영상제작업을 영위 중인 (주)KNN미디어플러스와 영상물 제작편집업을 영위 중인 (주)KNN미디어플러스경남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이외에도 부동산 시설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주)KNN디앤씨까지 보유하고 있어, 총 3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동사의 최대주주는 (주)넥센(최대주주: 강호찬 48.49%)으로 39.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표 1] 동사의 종속회사

상호	설립일	주요사업	지배관계
(주)KNN미디어플러스	2000년	인터넷 방송, 방송영상제작, 소프트웨어개발	50%이상 지분소유
(주)KNN미디어플러스경남	2008년	영상물제작편집	(주)KNN미디어플러스의 종속회사
(주)KNN디앤씨	2016년	부동산시설관리, 부동산시설경비, 부동산시설유지	100% 지분보유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 주요 사업 현황

동사는 SBS와 프로그램 공급 협약을 맺고 지상파 TV 및 라디오 방송업을 영위 중인 부산·경남 지역의 민영방송사업자이다. 동사는 2005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산·경남 지역의 민영방송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부산·경남 지역 668만 명의 시청자를 단일방송권으로 보유하고 있다. 동사를 포함한 9개 지역의 민영방송사는 SBS와 함께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체 방송 시간 중 SBS 프로그램 70%, 자체 프로그램 30%의 비율로 방송을 편성하여 송출하고 있다.

[표 2] 동사의 프로그램 편성 현황

편성현황		시간(분)	편성비율(%)	주요프로그램
자체 편성	자체제작 프로그램	2,035	22.7	KNN뉴스아이 등
	공동제작 프로그램	755	8.4	네모세모 등
	구입 프로그램	-	-	-
	교환 프로그램	50	0.6	열린예술무대 뒤란
	소계	2,840	31.7	-
네트워크 편성	SBS 프로그램	6,110	68.3	SBS 8시 뉴스 등
총 방송시간		8,950	100.0	-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 매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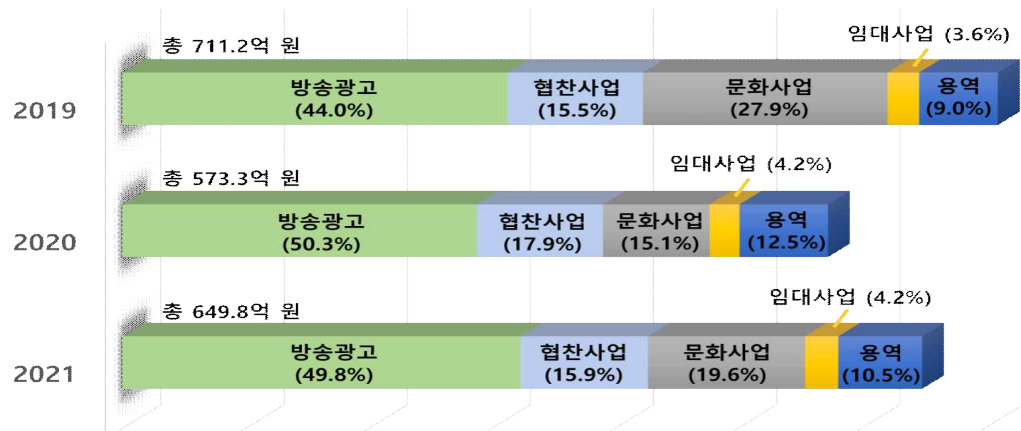
동사의 주요 매출은 방송광고 수입으로 발생하고 있다. 방송광고 영업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서 판매대행을 수행하였으나, 2012년 2월 미디어법 제정에 따라 현재는 (주)에스비에스엠앤씨가 동사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동사의 사업보고서(2021.12)에 의하면, 동사의 매출액은 2019년 711.2억 원, 2020년 573.3억 원, 2021년 649.8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 결산기준 매출은 TV 및 라디오의 방송광고가 49.8%, 프로그램 협찬 등의 수입이 15.9%, 공연 및 전시 등의 문화사업이 19.6%, 부동산 임대사업이 4.2%, 용역이 1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의 여파로 동사의 문화사업 매출이 2019년 198.6억 원에서 2020년 86.6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여 전체 매출액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안정됨에 따라 문화사업 매출이 2021년 127.6억 원으로 증가하며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동사의 3개년 매출액 추이

(K-IFRS 연결 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 동사의 ESG 활동



동사는 환경(E) 부문과 관련이 적은 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산업 특성상 동사가 대기 및 수질오염 물질, 온실가스 등의 환경 오염 물질 배출과 자원이용, 작업환경 등과 관련한 이슈 발생 가능성이 적다.

사회(S) 부문에서 동사는 지역의 학술, 문화, 예술 중흥의 구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의 학술문화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KNN 문화재단을 설립하였다. 동사의 KNN 문화재단은 문화대상시상, 지역과학영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각종학술활동 등 주요 사회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민영방송사 중 출연금이 가장 많다. KNN 문화재단은 2022년 1월 넥센월석 문화재단과 함께 경남 밀양시중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사랑의 성품 백미 192포대를 전달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부산의 영도구를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쌀과 저소득 가정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동사의 사업보고서(2021.12)에 따르면, 동사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11.5%로 동사가 속한 정보통신업의 여성고용비율 평균인 52.08%(2020년도 산업별 여성 고용 비율, 고용노동부)를 하회한다. 그러나,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78.4%로 동 산업평균인 71.8%를 상회하며,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의 근속연수도 64.2%로 동 산업평균인 58.8%를 상회하고 있어 동사는 남녀 고용 평등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동사 근로자의 근속연수 및 급여액

성별	직원 수(명)			평균근속연수(년)		1인당 연평균 급여액(백만원)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합계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남	103	10	115	19.0	13.6	102	71
여	12	3	15	12.2	8.0	80	51
합계	115	13	130	-	-	-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2021.02),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지배구조(G) 부문에서, 동사 사업보고서(2021.12)에 의하면 동사의 이사회는 총 9인으로 6인의 사내이사와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을 두어 재무제표, 이사회, 경영전반에 관한 감사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제8기(2001년)부터 제28기(2021년)까지 21년간 매 결산 연속적으로 현금배당을 시행하여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사의 최근 5년간 평균 배당수익률은 1.86%이다.

한편, 동사는 지역 언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행동기준인 KNN 취재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방송사로서의 사명과 자발적 윤리 준수 및 부정청탁 금지법 준수 의지를 담아 KNN 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언론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시청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방송의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타인의 명예 및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표 4] 방송시스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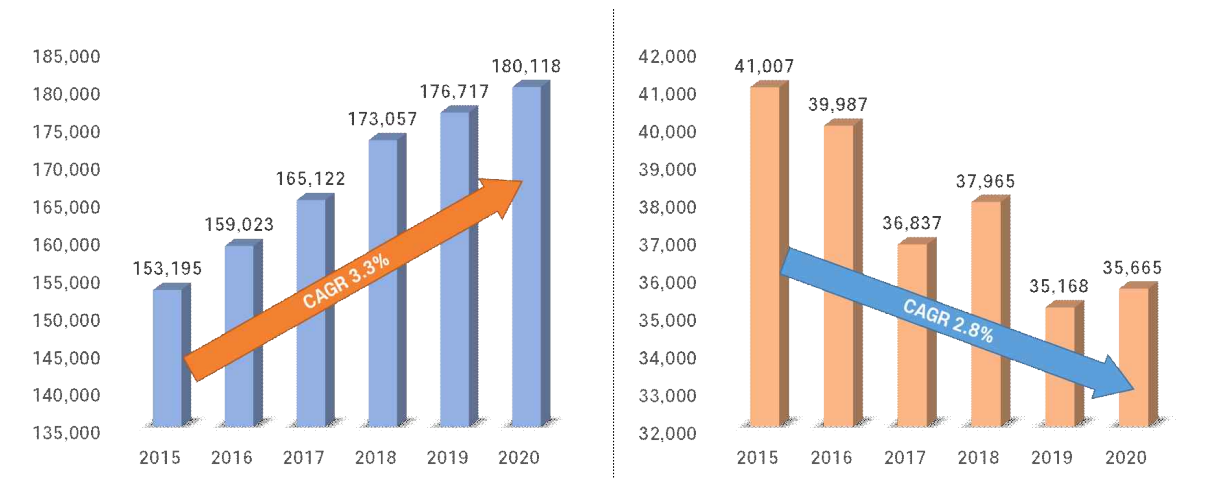
구분	지상파	IPTV	케이블	위성	OTT
콘텐츠 제작여부	자체제작			지상파, PP(Program Provider)로부터 제공받음	
전송망	지상파 주파수	IPTV 전용망	HFC망	위성 주파수	공용 인터넷망
수익모델	광고, 수신료	광고, 사용료	광고, 사용료	광고, 사용료	광고, 사용료
유지보수비용	낮음	높음	높음	낮음	가입자 수에 비례

*출처: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2017), NICE디앤비 재구성

이와 같은 多매체·多채널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지상파방송의 시장지배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2021)에 따르면, 국내 전체 방송사업 매출액은 2015년 15조 3,195억 원에서 2020년 18조 118억 원 규모로 연평균 3.3% 증가하였으나, 지상파방송의 방송사업 매출액은 2015년 4조 1,007억 원에서 2020년 3조 5,665억 원으로 연평균 2.8% 감소하였다. 이러한 방송 환경 변화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위성과 케이블방송에 별도의 채널로 진출하고 있으며, 지상파, 위성, 케이블, 인터넷을 망라하는 멀티미디어로서의 변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3] 전체 방송사업(좌) 및 지상파방송의 방송사업(우) 매출액 추이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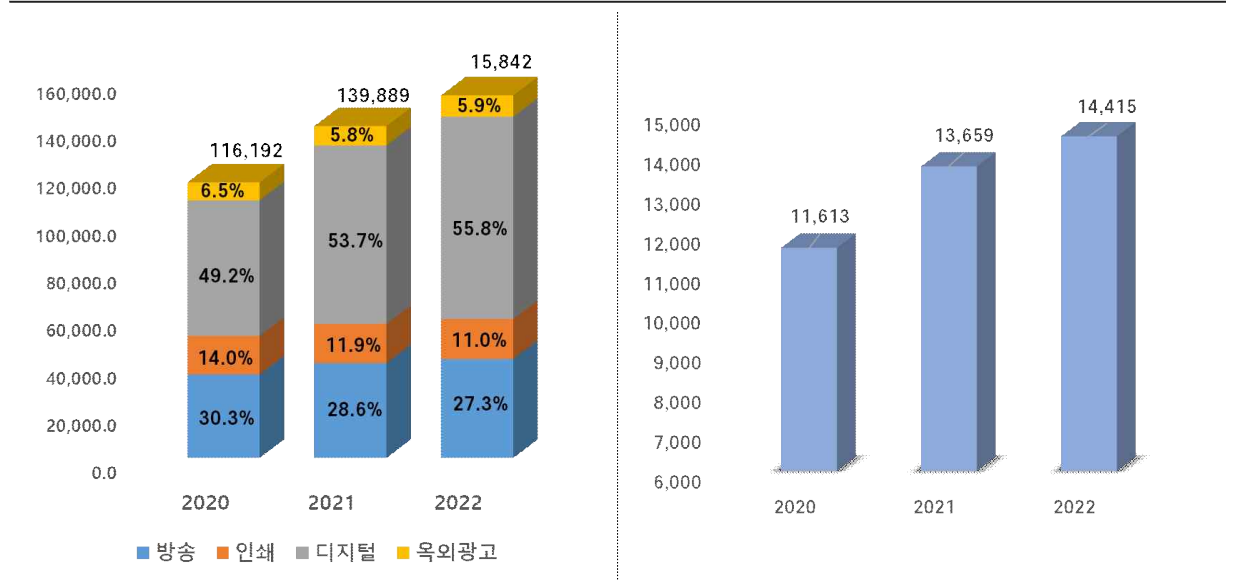
*출처: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2021), NICE디앤비 재구성

■ 대형 이벤트 호재 속에 광고시장의 성장 예상

지상파 방송사의 주요 매출은 방송광고 수입에서 발생하고 있다. 광고업은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한 분야로, 경기가 나빠지면 광고비 집행이 급감하여 관련 시장의 매출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크리스마스, 연말 등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 활발한 계절에 광고 수주가 증가하며, 특히 올림픽, 월드컵 등 대형 이벤트가 있는 경우 광고 수주가 급격히 증가한다. 제일기획이 집계한 2021년 광고비 현황을 살펴보면, 총 광고비는 13조 9,8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4% 증가하였으며, 방송광고 시장은 전년 대비 13.4% 성장한 4조 2억 원을 기록하였다. 특히, 지상파TV 광고시장은 중간광고 시행 등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한 1조 3,659억 원을 기록하였다. 2022년 방송광고 시장은 동계 올림픽, 대통령 선거, 월드컵 등 대형 이벤트 호재 속에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전체 광고(좌) 및 지상파TV 광고(우) 시장규모 (단위: 억 원)



*출처: 제일기획(2022), NICE디앤비 재구성

■ 경쟁사 현황

동사는 지상파 TV 및 라디오 방송업을 영위 중인 민영방송사업자로, 현재 국내에서 동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 중인 업체는 (주)티비씨, 부산문화방송(주) 등이 있다.

(주)티비씨는 1994년 (주)대구방송으로 설립되었으며, 201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 후 2015년 (주)티비씨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주)티비씨는 대구·경북 지역을 주요 시청권으로 하는 지역 민영방송사로, SBS를 키국으로 방송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주)티비씨는 방송서비스 이외에 문화서비스, 광고, 출판, 음반 제작, 도매 등의 사업을 영위 중이다.

부산문화방송(주)는 대한민국 최초의 상업 목적의 민영방송사로, 서울에 본사를 둔 문화방송(MBC)보다 2년 빠른 1959년에 개국하였다. 현재 TV 채널 2개, 라디오 채널 2개, DMB 채널 3개를 운영 중이다.

[표 5] 동사의 주요 경쟁기업 현황

(단위: 억 원, %, 2021년 결산기준)

기업	(주)티비씨	부산문화방송(주)	동사
매출액	428.4	215.2	649.8
영업이익	43.3	-55.2	98.8
영업이익률	10.1	-25.7	15.2
순이익률	10.8	-10.6	14.1

*출처: 각 기업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Ⅲ. 기술분석

다양한 콘텐츠 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대응

동사는 1995년 개국과 동시에 지역 민영방송사 최초로 드라마를 자체 제작하여 방영하였으며, 2006년 시청자 리플을 반영한 독특한 방식의 드라마를 제작하여 주목을 받았다. 한편, 종속회사 (주)KNN미디어플러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프로야구 인터넷 중계사업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광고수입 의존도가 높은 수익구조를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 SBS를 제외한 지역 민영방송사업자 중 가장 높은 광고수입 점유율 기록

동사는 방송산업과 방송문화 진흥을 위한 정부의 민영방송 추진계획에 따라 서울권 민영방송사업자인 SBS의 출범 이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광역시에 별도의 민영방송사업자 선정을 통해 설립되었다. 현재 지상파방송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공영방송, 민영방송, 특수방송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KBS, MBC, EBS 등은 공영방송으로, 동사를 비롯한 SBS, 티비씨(TBC), 광주방송(KBC), 대전방송(TJB), 울산방송(UBC), 전주방송(JTV), 청주방송(CJB), 강원민방(G1), 제주방송(JIBS), 경인TV(OBS) 등은 민영방송, 그 외에 종교방송, 교통방송, 국악방송 등은 특수방송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지상파방송국은 수신료 수입 등으로 운영되는 KBS 1TV와 EBS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광고 수입이 주요 매출원이므로, 광고수입 점유율을 통해 방송사의 시장경쟁력을 유추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점유율은 MBC, KBS, SBS 3사가 85.1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방송사들이 나머지를 분할 점유하고 있다. 동사의 광고 점유율은 1.76%로 주요 3사 및 EBS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광고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6] 지상파 방송사 광고수입 점유율

(단위: %)

방송사	2021년	2020년	2019년
MBC	33.14	24.17	31.95
SBS	29.49	27.49	28.70
KBS	22.56	33.57	23.29
EBS-TV	2.18	2.21	2.38
동사	1.76	1.66	1.79
CBS	1.71	2.01	2.07
OBS	1.55	1.44	1.53
TBC	1.32	1.23	1.33
KBC	1.13	1.11	1.14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 **드라마 및 보도 프로그램 등 우수한 자체 프로그램 제작 기술 보유**

동사는 1995년 지역 민영방송사 최초로 박인환, 배용준 주연의 개국특집 드라마 '해풍'을 자체 제작하여 방영하였으며, 1996년 김정현, 박상민 주연의 '형제의 강'을 SBS와 공동 제작하였다. 이후 지역 민영방송사 최초의 정기 편성드라마인 '대박인생(2008년)', '그녀의 스타일(2009년)', '다락방(2016년)' 등을 제작·방영하였고, 2010년 제작한 '촌티콤 웰컴 투 가오리'는 한국방송대상(제39회) 장편 드라마 작품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동사는 1995년 개국 이래 지금까지 메인 뉴스격인 KNN 뉴스아이를 방영 중이며 이는 지역 민영방송사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보도 프로그램이다. 한편, 동사는 2017년부터 UHD 초고화질 영상 제작 및 송출 시스템을 갖추고 UHD 방송을 시작하였으며, 2018년에는 지역민방 최초의 UHD 드라마 '날아라 메뚜기'를 제작하여 방영하였다. 현재는 UHD 방송 비율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

■ **국내 최초로 프로야구 인터넷 중계사업 수행**

동사의 종속회사 (주)KNN미디어플러스는 2000년 8월 설립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프로야구 인터넷 중계사업을 시작하였고, 실시간 인터넷 중계사업, 기업 사내 인터넷 방송 구축, 관공서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작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2006년 이후에는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청, 거제시청 등 관공서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방송사업을 연간 위탁하여 지역의 문화,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다. 또한, 관공서 및 기업의 홈페이지를 위탁 운영하며 SI 및 전산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튜브, SNS를 활용한 마케팅 사업과 KNN 평생교육원 운영 등을 통해 사업범위를 점차 확장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2008년 (주)KNN미디어플러스경남을 설립하여 기존 부산 기반에서 경상남도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림 5] (주)KNN미디어플러스 사업분야



*출처: (주)KNN미디어플러스 홈페이지

■ **다년간의 시설종합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건물관리 서비스 사업 영위**

동사는 광고수입 의존도가 높은 지상파방송의 특수성을 탈피하고자 사업수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종속회사인 (주)KNN디앤씨를 통해 건물, 공장, 기타 빌딩 등의 부동산 시설종합관리(관리, 경비, 유지보수 등) 및 부동산 임대관리업 등의 사업을 영위 중이다. (주)KNN디앤씨는 2016년 동사의 100% 출자로 설립되었으며, KNN타워 및 관계회사 시설물을 종합관리 하고 있다. 건물관리 서비스 사업은 건물 통합관리 솔루션 사업으로, 시설운영, 유지보수, 보안, 미화, 주차, 안내 등 건물 시설관리 전반의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KNN디앤씨는 부산·경남 지역에서 6년 이상 쌓아온 시설종합관리 능력과 다양한 서비스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다른 경쟁업체 대비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 **SWOT 분석**

[그림 6] SWOT 분석



IV. 재무분석

지역 내 일정 수준의 시장지위를 유지하며, 수익 및 재무구조 양호한 수준을 지속

TV 및 라디오 방송 광고 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매출 외형 등락에도 양호한 수익구조를 견지하고 있으며, 우수한 이익창출력을 바탕으로 재무구조 또한 우량한 상태를 유지 중이다.

■ 등락을 보이고 있으나, 2021년 매출 외형은 전년 대비 두자리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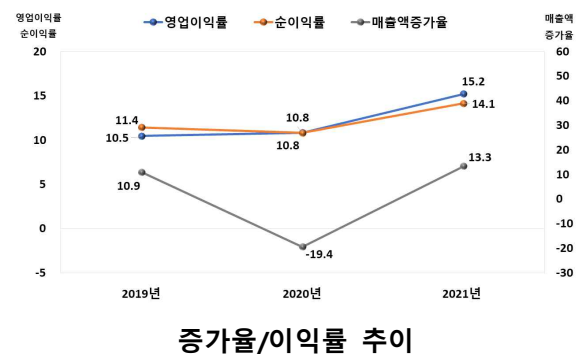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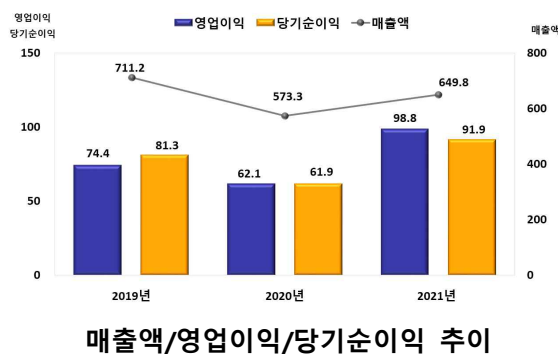
동사는 2019년 711.2억 원의 매출액을 나타내며 700억 원대 매출 외형을 기록했으나, 2020년 19.4%의 매출액감소율을 보이며 2020년 매출 규모가 573.3억 원에 그쳤다. 그러나 광고 단가 변경 및 광고 수주 증가로 인하여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649.8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3.3% 증가하며 외형 회복했다.

■ 최근 3개년 두자리수의 양호한 수익성 견지

동사는 최근 3개년 매출 변동에도 불구하고 2019년과 2020년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0.5%, 10.8%를 기록하며 양호한 수준을 지속했으며, (주)에스비에스엠앤씨(민영 미디어랩)의 제작비 및 인건비가 증가했으나, TV광고부문의 안정적인 매출에 힘입어 2021년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5.2%로 크게 개선되었다. 영업이익규모가 2020년 62.1억 원에서 2021년 98.8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동사는 안정적으로 우수한 수익구조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7]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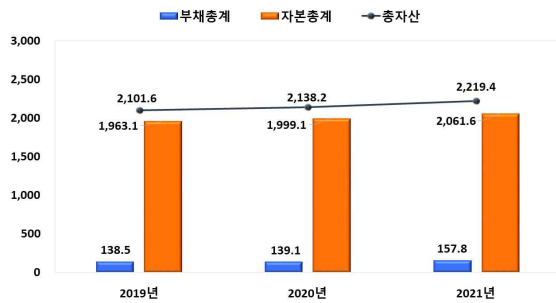
■ 우수한 수익창출력을 기반으로 안정적 재무구조 유지

동사는 동업종 내 양호한 시장지위를 바탕으로 매년 높은 수익성을 보이며 재무구조 또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부채비율 7.7%, 자기자본비율 92.9%를 기록하여 양호한 재무안정성을 나타냈으며, 무차입 경영을 지속하는 등 전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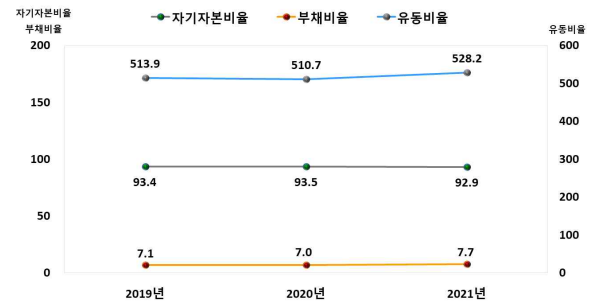
인 재무리스크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림8]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산/부채/자본 비교



자본구조의 안정성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표 7]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액	711.2	573.3	649.8
매출액증가율(%)	10.9	-19.4	13.3
영업이익	74.4	62.1	98.8
영업이익률(%)	10.5	10.8	15.2
순이익	81.3	61.9	91.9
순이익률(%)	11.4	10.8	14.1
부채총계	138.5	139.1	157.8
자본총계	1,963.1	1,999.1	2,061.6
총자산	2,101.6	2,138.2	2,219.4
유동비율(%)	513.9	510.7	528.2
부채비율(%)	7.1	7.0	7.7
자기자본비율(%)	93.4	93.5	92.9
영업현금흐름	120.4	113.3	215.2
투자현금흐름	-133.1	3.3	-111.0
재무현금흐름	-32.6	-31.3	-20.0
기말 현금	116.8	202.1	286.3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우수한 자체 제작 프로그램 및 SBS 프로그램 방영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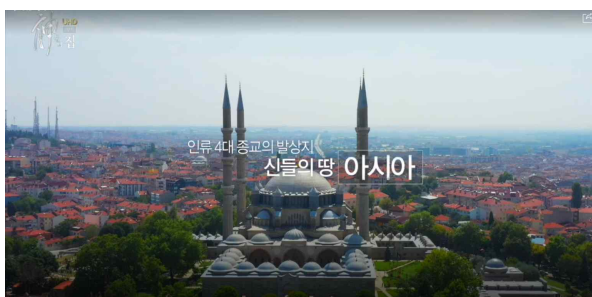
동사는 각종 시상식에서의 수상을 통해 자체 프로그램 제작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SBS 프로그램 방영으로 인한 광고 수입으로 양호한 수익구조를 지속하고 있는 바, 안정적인 사업 활동이 기대된다.

■ 자체 프로그램 제작 능력을 바탕으로 각종 시상식에서 작품상 및 우수상 수상

2022년 4월 동사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인 7부작 특집 다큐멘터리 '건축오디세이 신들의 집'이 제34회 한국 PD 대상 지역특집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다. 본 다큐멘터리는 2021년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방영되었으며, 서울의 종묘와 경산의 상옛집 등 지역에서 출발해 아시아 14개국 46개 도시의 종교 건축물을 하늘과 빛, 나무 등 자연적 요소를 활용해 재해석한 작품으로, 신선한 관점과 뛰어난 영상미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동사의 특별기획 '과학으로 본 허황옥 3일'을 통해 2022년 한국민영방송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작품은 서기 42년 금관가야를 창건한 김수로의 왕비 허황옥의 신혼여행길 3일을 복원한 다큐멘터리이다. 제작진은 100여 편에 달하는 국내외 논문 및 서적 등을 토대로 삼국유사 '허황옥 신행 3일'을 현대의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제작진은 2천 년 전 김해평야 주변의 지형에 삼국유사에 나오는 망산도, 주포, 만전, 왕후사의 정확한 위치를 복원하였다. 이 과정은 1954년부터 1991년까지 대중에게 공개된 적 없는 항공사진 1백 여장을 확보해 7개월이 넘는 작업 끝에 완성되었다. 동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지나치기 쉬운 역사적 실체를 다양한 자료 조사를 통해 규명하였으며, 취재와 편집을 통한 영상 구성이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그림 9] '건축오디세이 신들의 집'(좌) 및 '과학으로 본 허황옥 3일'(우) 방송화면



*출처: 동사 유튜브 채널

■ 지역내 시장지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 활동 영위

동사는 2021년 기준 부산, 경남 지역 668만 시청자를 단일방송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 민영방송사업자이며, 동사를 포함한 9개 지역 민영방송사업자는 SBS와 함께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동사는 70%의 높은 비율로 SBS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정적인 방송광고를 수주하고 있다. 한편, 2021년 (주)에스비에스엠앤씨의 제작비 및 인건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수익성이 개선되는 등 동사의 수익구조가 양호하여, 향후에도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증권사 투자의견

최근 1년 내 증권사 투자의견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10] 동사 1개년 주가 변동 현황



*출처: 네이버금융(2022년 05월 06일)